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한 구성단위를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종족을 이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나라마다 결혼 풍속은 다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하는 마음은 똑같고 두 사람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90개국을 두루 다니며 여행을 하는 동안에 지구촌의 흥미로운 결혼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경험했던 흥미로운 결혼 풍습을 소개한다.

▲독일

독일의 젊은이들은 대개 18세 정도의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집을 떠나 기숙사나 방을 얻어 따로 산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

결혼관 역시 우리와는 달리 독특하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 남녀들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워낙 이혼을 많이 하는 사회이

# 세계의 결혼 풍속

▼ 신부를 안은 모습(러시아).

글·사진:허용선(건강칼럼리스트)



▲ 교회에서 결혼하는 모습(독일).



▲ 친구들과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러 가는 신혼부부(러시아).



▲ 결혼식날 하객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한다(이집트).



▲갓 결혼식을 치른 행복한 커플의 모습(독일).

므로 살아 보다가 성격이 맞고 서로 좋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동거하는 부부들은 피임에 신경을 쓰지만 아이를 낳아 그대로 키우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보통 시청에서 하는데 기독교인이면 교회나 성당에서 한 번 더 결혼식을 가진다. 시청에서 하는 결혼식은 양가에서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씩 증인으로 나와 시청 호적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간소한 것이지만 교회나 성당에서 갖는 결혼식은 부모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여 결혼을 축하해준다.

결혼 전날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 앞에는 주위 사람들이 접시를 깨트리거나 쓰레기를 잔뜩 버려 놓는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깨끗이 청소

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습은 앞으로의 긴 결혼생활에서 닥칠 어려움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는 뜻이 담겨있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독일인답게 예물도 백화점에서 하나씩 맞추는 백금반지가 전부이며 피로연은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 흥겹게 진행된다. 피로연에는 으레 댄스파티가 있는데 파티의 마지막에는 결혼하여 아줌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하얀 면사포를 친한 친구에게 주고 자신은 스카프를 쓴다.

### ▲러시아

얼마 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가보니 흰색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양복을 입은 신랑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교회나 결혼궁전, 혹은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크레믈린 궁전 부근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명용사의 묘 앞에 꽃다발을 바치러



▲ 하객들이 모여 춤을 추며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모습(러시아).

온 신혼부부들이다. 러시아에선 딱딱한 결혼식과는 달리 피로연은 요란하고 즐겁게 진행된다. 축사와 건배가 잇따르고 음식과 술, 노래와 춤판이 벌어진다. 누군가 '고리코'라고 외치면 신혼부부들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키스를 해야 한다. 향후 부부생활이 달콤한 키스처럼 행복하라는 주문이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요즘에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결혼식도 자주 한다. 이때는 신랑과 신부가 교회 안으로 입장한 후 기도를 드리고 반지를 서로 교환한다. 다음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가 신랑과 신부에게 관을 씌운다.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하면서 축사를 낭독한다.

신랑과 신부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낭송하고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주에는 동전이 끼워진 빵이 담겨져 있다.

사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세 번 마시게 준다. 신랑은 세 번째 잔을 다 마시고 바닥에 던지고 그것을 발로 으개어 버린 후 끝으로 관을 벗는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은 신부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으로 생각되거나, 사람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예견한다. 결혼식 때 사용한 촛대의 두 양초는 신랑과 신부가 지낼 방에 있는 호밀이 담긴 큰 통에 놓아둔다.

### ▲인도

인도나 스리랑카의 신부들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져와야 한다. 결혼식 비용도 신부측이 부담하며 신랑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신부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아버지나 오빠는 그동안 벌었던 돈을 지참금으로 상당히 지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결혼 전 젊은 여성은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결혼에 대비해야 한다. 딸을 낳으면 부모는 바로 혼수 준비를 해야 한다.

인도의 신문에는 신부 모집광고가 나간다. 남자 이름과 나이, 수입과 재산 등이 적혀 있다. 이것을 본 여성은 자기 신분에 맞는 남자에게 연락을 한다. 이것은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결혼은 반드시 동일한 카스트 계급의 사람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의 원칙들은 현대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결혼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가 좋은 배필감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믿는 힌두교리에 따라 별자리를 맞춰 본다. 신부의 별자리가 안 좋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인도 결혼식 행렬. 재산 상태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 인도 전통 결혼식 날 화려하게 분장한 여성.

별자리가 좋으면 양가의 가계와 족보를 살펴본다. 다음 결혼에서 중요한 신부의 지참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혼 날짜가 정해진다.

### ▲이집트

이슬람교를 믿는 이집트 남자들은 원칙적으로는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부일처로 살아간다. 많은 부인을 두려면 돈이 많아야 되므로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과거 엄격했던 이슬람 사회에선 신부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랑이 파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혼전 성교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신부의 아버지나 오빠가 신부의 목을 베어 죽이는 일도 빈번했다.

가문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이처럼 순결이 중요했지만 일단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 으뜸이었다. 어떤 곳에선 신부에게 계란을 던졌는데 이것은 암탉이 알을 많이 낳듯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다.

결혼하기 위해 이집트 남자들은 준비할 것이 많아 결혼 연령이 늦어 30세가 넘는 일이 많다. 반면 여자들의 결혼 연령은 낮아 이집트 부부들은 나이차가 큰 편이다. 21세가 넘으면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이 가능한데 중매결혼이 일반적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는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 관계를 집안에 알리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결혼한다.

이처럼 이집트의 결혼은 전통사회형이다. 결혼이 당사자끼리의 사랑에 의한 결합이기에 앞서 가문간의 결합이라는 점이 중시된다. 🌐